

- 1 -

장기간 체류한 기관지 및 식도이물

경복의대

성창섭 · 조태환 · 최상규 · 탁기식 · 이웅렬 · 배홍갑

서론

식도 및 기도이물은 순간적인 부주의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곧 제거하게 된다.

그러나 보호자의 무지, 환자가 연소자인 경우, 그리고 치료자의 적극적인 진단이 결여된 경우에 이물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채 장기간 체내에 체류하게 되며 그 결과로 생긴 합병증을 주소로 타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뒤늦게 이물을 발견하고 이비인후과로 전원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저자들은 체내에 장기간 체류한 식도이물 1례와 기관지이물 1례를 각각 경험하였기에 그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2 -

고도의 식도 협착증 7예

부산메리놀병원

김기주 · 김호성 · 조중환

생활수준 및 사회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부식성 약물인 식초, 염산, 쥐약 및 농약으로 인한 식도 부식증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식도부식증으로 조래된 합병증인 식도 협착은 즉각적인 응급처치 및 입원치료로 그 발생빈도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 및 부주의, 환자 및 보호자의 비협조로 가끔 식도 협착을 만나게 된다.

고도의 식도 협착증 환자 7례 중 18 ~ 51 French Sippy esophaglal dilating bougie 로 식도확장이 가능했던 6례와 전식도부 협착으로 흉부외과로 전과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 23 세된 가정주부로 자살목적으로 염산을 섭취 후 2개월 후, 연하곤란으로 위루술 시행 후 즉시 내원하여 제 1 생리적 협착부 확장이 가능했던 예.

증례 2 : 51 세 남자로 가슴소다를 오연하여, 2개월 후 제 2 및 제 3 생리적 협착부 협착증을 일으켰는데, 성공적으로 확장이 가능했던 예.

증례 3 : 43 세 남자로 빙초산을 술로 오연하여 부적절한 치료로 제 3 생리적 협착부에 협착을 일으켜 내원하여, 부지술로 식도 확장을 시도 하고 있는 1 예.

증례 4 : 58 세된 여자로 염산취약을 섭취 후 제 1 생리적 협착부 및 유문부 협착으로 위십이지장 문합술을 시행하여 2개월 후 내원하여 식도 확장이 성공한 예.

증례 5 : 47 세 여자로 내원 4개월 전 자살목적으로 염산을 섭취 후 Tube 삼관을 1달 가량 하였으나, 제 1 및 3 생리적 협착부에 식도 협착이 와서 치료중인 예.

증례 6 : 21 세 남자 운동선수로 14개월간 3일에 2순갈씩 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빙초산을 섭취하여 연하곤란으로 일반 외과적 수술을 시행 후 내원하여, 식도 엑스선촬영상 전식도부 폐색을 보여 흉부외과로 전과 시킨 예.

증례 7 : 3살된 여자로 가슴소다를 오연해 전식도부 협착으로 전신마취하에 16개월간 식도 부지법으로 확장중 식도 하부 천공이 생겨 치유시킨 예.

- 3 -

氣胸을 동반한 氣道異物 1例

忠南醫大

羅基岸 · 金無名 · 金光顯 · 朴贊日

氣道異物은 耳鼻喉科領域에서 드물지 않은 疾患으로 異物의 種類도 다양하지만 그 介在部位도 다양하여 때로 異物除去에 手術的 方法을 요할 때도 있다. 著者들은 최근 불펜뚜껑을 吸引한 15세의 여자환자에서 胸部 X-線上 左側 肺下葉의 無氣肺가 나타나고 右側에 氣胸을 동반하고 있으며 氣管支造影圖上 左側 下葉氣管支의 完全閉塞을 관찰하였다. 全身麻酔下에서 氣管支鏡術에 의한

- 5 -

異物除去를 시도하였으나 異物이 左側 主氣管支下部에  
꼭 박혀있어 실패하였고 胸部外科에서 開胸術을 통한 氣  
管支切開術로 異物을 제거한 1例를 체험하였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 4 -

### 惡性變化를 일으킨 喉頭乳頭腫 3例

釜山醫大

李鍾澹 · 高漢珍 · 高義耕

喉頭乳頭腫은 17世紀 Warcellus Dohalus 에 의해  
Warts of throat 로 처음 소개된 이래 喉頭的 가장 흔한  
良性腫瘍으로 알려져 왔으며 組織學的으로는 良性이나  
病變의 位置, 病變의 多發性, 高度의 再發性 및 治療의  
困難으로 臨床的인 面에서 많은 問題點이 있다.

喉頭乳頭腫은 경우에 따라서는 自然治療도 가능한  
反面 惡性變化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頻度は 惡性變化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報告者부터  
26.0%에 이르기까지 많은 差가 있다.

著者들은 最近 扁平細胞癌으로 惡性變化를 일으켰던  
喉頭乳頭腫 2例를 經驗하였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症例 1은 58歲의 男子로서 1980年 5月 13日 約 3  
年間의 嗄聲을 主訴로 釜山大學病院 耳鼻咽喉科 外來로  
來院하였다.

來院 當時 局所所見은 兩側聲帶의 前半部 및 前連合에  
白色의 喉頭腫樣 腫物을 나타내었고 間接喉頭鏡下에서  
生檢을 實施하였던 바 喉頭乳頭腫이었다.

同年 5月 29日 入院하여 Suspension laryngoscopy  
下에 完全除去後 退院하였다. 退院時 5-FU 局所塗布  
를 勸諭하였으나 特別한 治療를 받지 않고 經過中 約 9  
個月後인 同年 3月 5日 嗄聲의 惡化와 輕微한 呼吸困  
難이 있어 外來를 再訪問하였는데 當時의 局所所見은 乳  
頭腫樣 腫物이 兩側 聲帶 및 聲門下部에 까지 觀察할 수  
있었으며 直接喉頭鏡下에서 生檢하여 扁平細胞癌으로  
診斷되었다.

7日後 患者는 極甚한 呼吸困難을 主訴로 應急室로  
來院하여 氣管切開術을 받고 入院하였다.

同年 4月 7日 喉頭全摘出術을 施行하고 3週後 退院  
하여 放射線治療를 받고 現在까지 特別한 異常없이 生活  
하고 있다.

症例 2는 47歲 男子로서 1978年 9月 27日 嗄聲 및

呼吸困難을 主訴로 來院하였다.

來院 當時 局所所見은 左側聲帶의 後半部에 白色의 빛  
나는 桑實狀의 腫物이 認知되어 間接喉頭鏡下에서 生檢  
을 實施한 結果 喉頭乳頭腫이었다.

同年 10月 24日 入院하여 氣管切開術後 Suspension  
laryngoscopy 下에서 乳頭腫을 除去하였으며 5-FU 局  
所塗布를 62.5 mg 씩 20回 總 1250mg을 使用하였고  
esrogen等을 投與하였으나 再發을 繼續하였다.

同年 9月 9日 심한 呼吸困難을 主訴로 應急室로 來  
院하여 氣管切開術을 施行한 후 生檢을 施行한 結果 扁  
平細胞癌으로 確診되어 同年 9月 29日 喉頭全摘出術을  
施行하였다. 術後 25日에 退院하여 現在까지 癌의 轉移  
혹은 合併症의 發生없이 經過하고 있다.

- 5 -

### 食道 및 기도이물의 통계적 고찰

한강성심병원

손영규 · 양희찬 · 최정현 · 신명수 · 이선철

1976年 9월 1일부터 1981年 8월 31일까지 5년  
동안 본원 이비인후과를 내원한 食道 및 기도의 이물환자  
270명에 대한 연령 및 성별 분포, 이물의 종류 및 빈도,  
각 이물의 개재부위, 그리고 각 이물의 개재기간에 대한  
통계적 고찰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食道이물은 전체 270례중 256례 (94.8%)로 대  
부분이었고, 기도이물은 14례 (5.2%)로 나타났다.

2) 연령별로는 食道이물에서 5세 이하가 198례 (77.7%)였다. 또한 이 연령군의 食道이물에서 주화가 175례 (87.9%), 기도이물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이 7례 (50.0%)로 주종을 이루었고, 4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골편류가 8례 (47.1%), 육괴가 6례 (35.3%)로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3) 성별 빈도는 食道이물에서 남자 대 여자의비가 151 : 105 (1.4 : 1)로 남자가 많았고, 기도이물에서도 남자 대 여자의비가 10 : 4 (2.5 : 1)로 남자가 많았다.

4) 종류별로 보면 食道이물에서는 주화가 199례 (7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금속류가 15례 (5.9%), 골편 (5.1%), 육괴 (3.9%) 순으로 나타났다. 기도이물에서는 플라스틱류가 7례 (50.0%)로 가장 많았다.

5) 개재부위는 食道에서 제 1협착부가 가장 많았고 (93.4%), 기도에서는 기관지가 가장 많았으며 (71.4%) 특히 우측 기관지가 많았다.

- 6 -

Case 5. The patient was 41 year-old woman who ingested HCl for suicide 4 months ago. There was indwelled orogastric tube for 1 month but esophageal stricture developed at the first and 3rd constriction part. She was treated by using a bougination.

Case 6. An athlete 21 year old man, ingested acetic acid 2 spoonful per 3 days by purpose in order to soften the bone for last 14 months. There was complete esophageal obstruction in esophagogram and transferred to the thoracic surgery department.

Case 7. A 3 year-old girl was ingested lye at a accident. She had a bougination for 16 months under the general anesthesia for dilation due to whole irregular esophageal stricture. She developed lower esophageal perforation, but healed eventually.

— 3 —

#### **A Case of Bronchial Foreign Body With Contralateral Pneumothorax**

**Ki Sang Rha, M.D., Moo Myung Kim, M.D.,  
Kwang Hyun Kim, M.D., Chan Il Park,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Foreign body in the air passage is not uncommon in the field of otolaryngology. The majority of bronchial foreign bodies can be removed by bronchoscopy, but some cases may require surgical procedure. Recently, we experienced an impacted foreign body (ball-pointed pen cap) in the left main bronchus with pneumothorax on the right side. Authors tried bronchoscopic removal under the general anesthesia but failed. Lateral thoracotomy was performed by chest surgeon and foreign body was successfully removed.

— 4 —

#### **2 Cases of Malignant Changed Laryngeal Papilloma**

**Jong Dam Lee, M.D., Han Jin Goh, M.D.,  
Eui Kyung Goh,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Busan National University*

Papilloma is the common benign tumor of the larynx and the incidence of its malignant change was variable.

The authors recently experienced 2 cases of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larynx which were considered to be transformed from laryngeal papilloma.

Case 1. A 58 year old male patient visited O.P.D. of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ecause of hoarseness for 3 years on May 13th, 1980.

At that time, local finding of indirect laryngoscopy revealed whitish hypertrophic papillomatous mass on both vocal cords and anterior commissure, and dirty gray white pseudomembrane on left aryepiglottic fold, and the result of biopsy was squamous cell papilloma.

So the laryngeal papilloma was removed under suspension laryngoscopy and then he had no specific treatment in spite of being recommended 5-FU topical spray.

On March 5th, 1981, he visited O.P.D. again because of progressive exacerbation of hoarseness with mild dyspnea and histopathological finding was revealed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larynx.

Seven days later from that day, he visited emergency room due to severe dyspnea, and emergency tracheostomy was performed on sitting position.

— 25 —